



친절한 백화점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황여진 그림



표지 탐색하기

<친절한 백화점>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의 제목 '친절한 백화점'을 보고,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지 글로 자세히 표현해 보세요.

⇒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보다 값진 ㉠'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귀한 '사람'입니다.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무시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며 엄마이고 아빠랍니다!

① 밑줄 친 ㉠의 '갑'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윗글에 나온 표현을 이용해서 써 보세요. ⇒

②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두 찾아서 표시해 보세요.

[심화 보충] 갑과 을은 원래 계약서상에서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법률 용어다. 보통 권력적 우위인 쪽을 '갑', 그렇지 않은 쪽을 '을'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갑을관계'를 맺는다 는 표현이 생겼으며, 지위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지금은 대기업과 협력 업체, 업주와 종업원, 상사와 직원, 고객과 서비스업체까지 이 표현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친절한 백화점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황여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 <친절한 백화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나무늘보랑 하마는 가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알밉게 ㉠고시랑거렸어요.

· 여러 번 갈아 신고 난 뒤에도 남편 문어가 ㉡변덕스럽게 또 마음을 바꾸었어요.

(나) ·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향하는 가비는 아주 ㉢□□□□했어요.

· 정은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가비는 어깨를 펴고 ㉣□□□□하게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 가비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느라 ㉤□□□□했어요.

(다) · 모듬 아이들은 ㉥어안이 병병해져서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 백화점에 가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었거든요.

1) (가)의 밑줄 친 낱말 ㉠(고시랑거리다), ㉡(변덕스럽다) 중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① 이랬다저랬다 하는, 변하기 쉬운 태도나 성질이 있다. ⇨ ()

②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도량이 좁고 응졸하게 자꾸 하다. ⇨ ()

2) 다음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에 들어갈 말을 완성하세요.

㉢□□양양 :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등등 : 기세가 매우 높고 힘찬 모양.

㉤횡설□□ :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지껄임.

3) (다)의 밑줄 친 표현 ㉥(어안이 병병하다), ㉦(귀에 딱지가 앉다) 중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①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다. ⇨ ()

② 뜻밖에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다. ⇨ ()



친절한 백화점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황여진 그림



1. 알뜰 백화점이 열리는 날

다음 <친절한 백화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여러분 물건은 가져왔나요? 다들 알겠지만 우리 반 바자회 제목은 알뜰 백화점이에요.” /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덧붙였어요.

“알뜰 백화점 행사는 마지막 4교시와 점심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해요. 모듬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에 각자 팔 물건을 정하고 가격을 붙여 정리하면 돼요. 이제 책을 펴도록!”

(나) 가비가 정은이 옆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은 물건 많이 가져가면 힘든 일 같은 건 안 해도 되겠어.”

그러고는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정리 따위는 나 몰라라 하고 교실 밖으로 내뺐어요. 뒤에서 여자아이들 몇몇이 속덕거렸어요.

“정말 못 말려.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가비네 엄마 갑질이 장난 아니래.” / “갑질? 그게 뭐야?” / “백화점이나 시장 같은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못 되게 구는 거래. 자기가 손님이니깐 친절하게 대하라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대.” / “나쁘다.” / “치, 금가비 못 됐어.”

1) (가)~(나)에 나타난 ‘가비’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써 보세요.

⇒ ■

■

2) (나)에서 ‘가비네 엄마’는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갑질’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



친절한 백화점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황여진 그림



2. 여우 지배인

다음 <친절한 백화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고객님 한 분에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일해 주시면 됩니다.” / 여우 지배인의 말을 멍하게 듣고 있던 가비가 자기도 모르게 냉큼 대꾸했어요.

㉠“칫, 그런 말 한 마디 듣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백화점에 가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따위를 듣는 건 후딱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가비는 손쉽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가비의 생각을 눈치챈 듯 여우 지배인이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말했어요. / “물론 그러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나) 밖으로 나온 순간 가비는 너무 놀라 온몸이 굳은 것만 같았어요. 가비가 알고 있던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밖은 커다란 풀과 이름 모를 나무로 뒤덮인 정글이었어요. 가비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어요. 째깍하고 어두운 정글에서 금방이라도 무엇인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풀이랑 나무들이 거미줄처럼 늘어나 잡아챌 것 같았어요. 어찌나 위험하고 촘촘해 보이는지 겁이 덜컥 났어요.

1) (가)에서 ‘가비’가 ㉠과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쓰세요.

⇨

2) (나)에 나타난 ‘가비’의 상황과 마음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세요.

밖으로 나오니 □□가 아니라 커다란 풀과 이름 모를 나무로 뒤덮인 □□이었음.



너무 □□ 온몸이 굳은 것만 같았다가 풀이랑 나무들이 잡아챌 것 같아서 □이 덜컥 났음.



친절한 백화점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황여진 그림



3. 손님이 무조건 왕이라고?

다음 <친절한 백화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말도 안 돼!” / 가비는 더는 참지 못하고 껍 하고 소리쳤어요. 고맙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한다는 건 새까맣게 잊어버렸지요. 하지만 가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판다랑 스컹크가 아우성을 쳤어요.

“여긴 터무니없이 값이 비싸.” / “빨리 지독한 향수로 바꿔 줘!”

고슴도치도 말이 안 되는 트집을 잡았고요. / “서비스가 엉망이야. 손님이 왕이라는 것도 몰라.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지? 버릇없고 불친절해.”

(나) 판다랑 고슴도치는 화를 내며 펄펄 뛰었어요. 스컹크도 화를 내며 방귀를 뽕뽕 뀌어 댔지요. 백화점은 금세 지독한 냄새로 가득 차올랐어요.

가비는 코를 싸진 채 진열장 위에 있는 빨간 단추를 눌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우 지배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여우 지배인은 재빨리 환기를 시킨 뒤 예의 바른 태도로 고객들을 다독거리기 시작했어요. 상냥한 표정으로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는 모습이 꼭 방아깨비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잠깐 틈을 보아 가비를 향해 주의를 주듯 엄하게 말했어요. / “저쪽 구석으로 가 있도록 하세요!”

1) (가)에서 ‘가비’에게 ‘판다’랑 ‘스컹크’는 아우성을 치고, ‘고슴도치’는 트집을 잡고 있어요. 이러한 동물들의 잘못을 요약하여 쓰고, 이들에게 충고하는 말을 써 보세요.

⇒

2) (나)에서 고객을 대하는 ‘여우 지배인’의 모습이 어떤지 쓰고 그런 그를 가리키는 말을 찾아 쓰세요.

⇒



친절한 백화점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황여진 그림



4. 어울리지 않아요

다음 <친절한 백화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별안간 며칠 전 일요일에 엄마를 따라 백화점에 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엄마는 가비가 일주일 내내 신었던 운동화가 불편하다며 바꿔 달라고 점원 언니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가비도 비싼 값에 구입한 신발이니까 교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점원 언니들이 상냥하게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랑 가비는 억지로 우겨서 새 운동화로 교환해 가지고 왔지요. 이마에 파르라니 힘줄이 돋은 채 어쩔 줄 몰라 했던 백화점 언니의 원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 가비는 울상을 지으며 엉거주춤 고개를 숙였어요. /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들어야 하는데…….' / 여우 지배인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가비는 어깨를 움츠린 채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자기가 사과를 해야 하다니! 하지만 최대한 빨리 내뱉듯 말하고 잊어야 했어요. 여기서 못된 하마랑 나무늘보를 당장 내쫓고 싶었으니까요. 그러고는 아무한테라도 고맙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빨리 듣고 싶었어요. / "미안해요."

1) (가)에서 벌어진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p>엄마 : 가비가 일주일 내내 신었던 운동화가 불편하다며 바꿔 달라고 요구함.</p> <p>가비 : 비싼 값에 구입한 신발이니까 교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함.</p>	➔	<p>백화점 점원 언니 :</p>	➔	<p>엄마랑 가비 :</p>
--	---	-------------------------------	---	----------------------------

2) (나)에서 '가비'의 속마음은 어떠했는지 정리하여 써 보세요.

⇒



친절한 백화점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황여진 그림



5. 신발 코너에서

다음 <친절한 백화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가비는 이를 악물고 문어 부부를 도왔어요. 물컹물컹하고 비린내가 풀풀 풍기는 문어 부부의 다리에 통으로 된 기다란 신발을 신겨 주었어요. 신발을 갈아 신겨 주는 동안 허리도 아프고 팔도 빠근해졌으며 온몸이 뻣뻣해졌어요. 문어 부부는 다섯 번이나 다른 신발로 갈아 신었지요. 신발을 바꿔 신을 때마다 가비의 손이 문어 다리 빨판에 짹짹 들러붙었어요. 그때마다 가비의 몸이 흠칫 떨렸지요. 여러 번 갈아 신고 난 뒤에도 남편 문어가 변덕스럽게 또 마음을 바꾸었어요.

(나) 남편 문어가 온몸을 발강게 붉히고 꿈틀꿈틀 움직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전해 줘.” /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으로서 고객님에게 봉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 여우 지배인이 남편 문어를 향해 상냥하게 대꾸했어요. 그러자 아내 문어가 옆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거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성격이 다혈질이라 순간 욱해서 화를 낸 거지 속마음은 안 그래요. 사실은 신발 신는 거 도와줘서 저 어린 직원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1) (가)에서 ‘가비’와 ‘문어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가비 : 문어 부부의 □□에 통으로 된 기다란 □□을 신겨 주며 도왔음.



문어 부부 : □□을 여러 번 갈아 신고도 변덕스럽게 또 □□을 바꾸었음.

2) (나)에서 ‘남편 문어’와 ‘아내 문어’가 ‘가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세요.

남편 문어	() 마음.
아내 문어	남편 문어가 사실은 가비에게 ()하고 있다는 것.



친절한 백화점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황여진 그림



6. 고객과 손님은 모두 서로에게 친절해야 해요

다음 <친절한 백화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가비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 “전등이 고장 났나?”

그때 가까이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지요. 가비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교실에 쇼핑하는 아이들이랑 선생님이 보였어요. 가비네 교실이랑 비슷했지요. 가비는 눈을 비볐어요. 잘못 본 거면 어쩌나 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 혹시 나 싶어 팔도 꼬집어 보았고요. / “아야!”

눈물이 찢끔 났어요. / “돌아왔다, 진짜 돌아왔어!”

(나) “물건들은 눈에 잘 띄게 정리를 해야 하잖아.”

가비의 말에 모듬 아이들이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정은이가 끼어들어 가비 쪽으로 물건들을 은근슬쩍 밀어 주었어요. / “가비도 우리 모듬이잖아. 혼자 먼저 다녀온 게 미안하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가비는 빨갭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은이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모듬 아이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가비는 허둥지둥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비의 손톱 가장자리에는 먹물 마른 자국이 까맣게 남아 있었답니다.

1) (가)에서 ‘가비’가 ㉠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

2) (나)에 나타난 ‘가비’의 말과 행동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p>물건들은 눈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전시를 해야 한다며 알뜰 백화점 행사의 가비 네 모듬의 물건을 정리하려고 함.</p>	<p>정은이의 말과 모듬 아이들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스러운 눈에 허둥지둥 물건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하기 시작함.</p>
--	--



친절한 백화점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김경숙 글 / 황여진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예시답안) 1) 직원들이 모두 엄청나게 친절한 백화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다. 2) 정글 속에 커다랗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보라색 치마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아이가 그 건물 앞에 서서 입구를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 아래에는 커다란 분홍색 리본이 있다. 3) ①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가진 사람 ② 우리는 모두 귀한 '사람'입니다. /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며 엄마이고 아빠랍니다!
2쪽	① 화제, ② 신축성, ③ 닭달, ④ 주제, ⑤ 되새김질, ⑥ 구질구질, ⑦ 어깃장, ⑧ 실랑이, ⑨ 트집, ⑩ 다혈질
3쪽	1) ① ⇨ ㉠, ② ⇨ ㉡ 2) ㉢ 의기양양, ㉣ 기세등등, ㉤ 횡설수설 3) ① ⇨ ㉠, ② ⇨ ㉡
4쪽	1) (예시답안) •담임 선생님이 알뜰 백화점이라고 했는데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간 것. •자기는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왔으니 힘든 일은 안 한다 말하고 정리 따위는 나 몰라라 하고 교실 밖으로 내쫓 것. 2) (예시답안) 가비네 엄마처럼 백화점이나 시장 같은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못 되게 구는 갑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갑질을 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5쪽	1) 백화점에서 사람들에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손쉽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2) 학교, 정글, 놀라, 겁
6쪽	1) (예시답안) 판다는 값이 비싸다고, 스텝크는 향수를 바꿔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고슴도치는 서비스가 엉망이고, 직원 가비가 버릇없고 불친절하다며 트집을 잡고 있다. 이러한 동물들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며 직원 가비에게 정중하고 예의 있게 말해야 한다. 2) 여우 지배인은 예의 바른 태도로 고객들을 다독거리고, 상냥한 표정으로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고 있다. / 방아깨비
7쪽	1) •백화점 점원 언니 : 상냥하게 안 된다고 말함. •엄마랑 가비 : 억지로 우겨서 새 운동화로 교환해 가지고 왔음. 2) 미안하다는 말은 하마와 나무늘보에게 자신(가비)이 들어야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빨리 사과를 하고 그들을 내쫓고 싶다.
8쪽	1) 가비 : 다리, 신발 / 문어 부부 : 신발, 마음 2) 미안한 / 고마워하고
9쪽	1) 자신이 교실로 돌아온 것이 꿈인지 실제인지 확인해보려고 2) 잘 띄게, 의심, 정리